

한국어 교육과 번역

김보국

(헝가리, ELTE 대학교 한국학과)

herceg@chol.net

들어가는 말

대학을 비롯한 해외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한국학 수업은 한국학의 순수학문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현지의 실용적인 목적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해외 한국학 교육에 다양하고 상이한 여러 목적을 상정해볼 수 있으나 “해외”라는 지역적인 특성에 연유하여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동유럽지역의 경우 비교적 소수언어라고 할 수 있는 각양의 언어들이 산재해 있고, 한국학 교육기관은 각 국가마다 거의 한 두 개의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의 교육경험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전술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한국어 교육의 경우 중동유럽지역의 상이한 각각의 언어 때문에 실제 교육내용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의 공유는 기실 찾기가 힘들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의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서로들의 교육경험을 나누고 공유하는 다양한 시도가 가능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중동유럽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과 번역활동과의 상호역할과 작용, 올바른 번역 모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번역과 등가성

일반적으로 번역은 상이한 최소 두 언어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실상 동일한 각각의 공시적 언어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것이며, 동일언어의 통시적인 해석 또한 번역의 범주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은 일상적인 언어활동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에서 해석함이 바람직한데, 이는 번역이 문자의 발명과 거의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뿐만 아니라¹, Jakobson이 번역의 종류에 당연히 동일한 언어 내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을 포함시키고 있는 데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Jakobson이 규정한 세가지 번역의 종류는 특히 주목할 만 한데 우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언어 내 번역: 한 언어의 기호를 같은 언어의 다른 언어 기호로 바꾸어 해석.
2. 언어간 번역: 한 언어의 기호를 다른 언어의 기호로 바꾸어 해석.
3. 기호법간 번역: 언어 기호를 언어 외 다른 기호로 바꾸어 해석².

¹ 실제로 번역의 역사는 문자의 발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문자의 가장 오래된 형태인 수메르의 쐐기문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러한 문자들은 4500여년 전 점토에 쓰여진 2-3개의 언어로 된 단어모음들 속에서 발견되었다. (WOODSWORTH, 2004, 15)

² These three kinds of translation are to be differently labeled:

1. Intralingual translation or rewording is an interpretation of verbal signs by means of other signs of the same language.
2. Interlingual translation or translation proper is an interpretation of verbal signs by means of some other language.
3. Intersemiotic translation or transmutation is an interpretation of verbal signs by means of signs of nonverbal sign systems.

번역을 구분한 Jakobson의 상기 진술은 기호(signatum)없이 의미(signum)가 존재하지 않는다³는 유명한 그의 명제의 번역이라는 구체적인 언어활동에 대한 적용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번역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상기 구분은 번역에 있어서 등가성(equivalence)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등가성은 원어(source language)와 목적언어(target language) 사이의 상호동일성⁴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비단 번역이론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언어학에서도 그 핵심적인 분야에 속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⁵. Nida는 등가성이야 말로 번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는데 우선 ‘등가성’은 내용적인 면에서 원어의 의미를 목적언어에 적합하게 구현하는 것, 그리고 그 형식적인 면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일단 그가 제시한 성공적인 번역의 네가지 기본요건을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다.

1. 이해가 될 것.
2. 원문의 참뜻과 표현양식을 전할 것.

(JAKOBSON, 1959, 233.)

³ There is no signatum without signum. (JAKOBSON, 1959, 232.)

⁴ 원어와 목적언어 사이의 등가성, 상호동일성에 대한 논의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단지 상이한 두 언어를 비교하는 것은 번역가능성(translatability)을 전제로 하기에 번역불가능성(untranslatability)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생략한다. Snell-Hornby는 등가성은 실현불가능한 환상으로 기술하기도 한다. (SNELL-HORNBY, 1994, 14.)

⁵ OLIVER-HORNSBY, 1972, 306-321. Jakobson 역시 상이한 언어간의 어휘는 등가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더라도 문맥, 맥락(context)의 관점에서 등가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런 차이에서 연유되는 언어간의 등가(성)를 언어학의 핵심적인 연구대상으로 보았다 (“Equivalence in difference is the cardinal problem of language and the pivotal concern of linguistics.” (JAKOBSON, 1959, 233)).

3. 자연스럽고 쉬운 표현으로 나타낼 것.
4. (원문과 경우와 비교해서 독자에게) 유사한 반응을 재현시킬 것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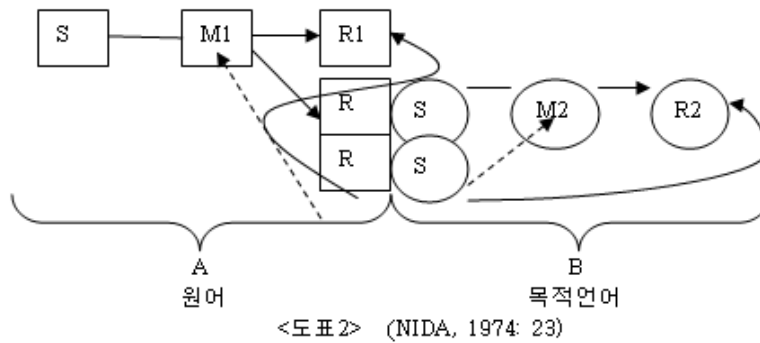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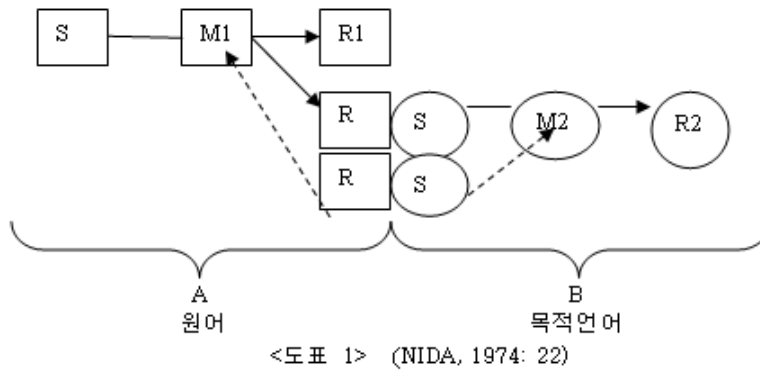
번역은 상이한 언어 사이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옮기는 것이며 등가성은 비단 그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 표현양식의 상호적합성 또한 의미한다. 상이한 언어 사이의 번역에서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이룬 등가성은 번역의 핵심적인 요소를 이루는 것이며,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이러한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이룬 등가성이 번역 그 자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Nida는 이러한 등가성을 형식 등가성 (formal equivalence)와 동적 등가성 (dynamic equivalence)으로 나누어 용어화했는데, 형식 등가성은 원어의 형식적, 표현적인 특성에 가능한 의미를 둔 등가성이며, 동적 등가성은 목적언어의 수용자 입장에서 그 목적언어에 대한 반응이 원어의 수용자와 비교해서 가능한 한 동일한 반응을 유도하는데 의미를 둔 등가성이다. 용어에서 오는 혼동을 막기 위해 여기서 한 가지 강조를 하고픈 것은 형식 등가성은 원어의 언어표현 또는 형식 그 자체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연히 그 내용과 의미를 수반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며, 단지 원어의 표현과 의미를 목적언어의 형식을 빌어 가능한 한 구현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그리고 동적 등가성은 이 보다는 “원어-원어 수용자-

⁶ For Nida, the success of the translation depends above all on achieving equivalent response. It is one of the 'four basic requirements of a translation', which are

1. making sense:
2. conveying the spirit and manner of the original:
3. having a natural and easy form of expression:
4. producing a similar response. (MUNDAY, 2001, 42.)

따라서 형식 등가성이 원어의 의미에 맞춰 그 형식과 내용을 앞세운 것이라면 동적 등가성은 문맥, 맥락에 따른 목적언어의 자연스러운 수용(이해)을 중요시하는 것으로서 목적언어의 수용자 사회에서 문화적인 제약 없이 원어의 내용을 전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동적 등가성을 목적언어 수용자 사회의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그 본래의 형식과 의미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운 “유사 의미(similar significance)”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를 문화적 등가성으로 불리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어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목적언어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그 수용성에 방점을 둔 동적 등가성의 우위를 가정해봄이 바람직하며 아래 Nida의 도표로 이 두 가지 등가성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Figure A6.1. (HAMTIN, 2004, 44.)



우선 상기 도표에서 네모로 표기된 부분은 원어, 원어로 표기된 부분은 목적언어를 나타내는데, <도표1> 형식 등가성에 기초한 번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원어의 메시지를 M1으로 상징하고 동일언어의 사용자로서 수용자 R1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며, 번역자는 이 M1을 번역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메시지 M2를 목적언어의 수용자 R2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경우 질적인 면에서 번역의 검토는 M1과 M2의 대조,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두 가지 언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이들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동적 등가성에 기초한 번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도표2>에서는 M1과 M2의 검토와 아울러 원어의 메시지 수용자인 R1과 목적언어의 메시지 수용자인 R2의 각각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살펴 봄으로서 조금 더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번역의 검토를 행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동적 등가성에 바탕한 번역 모델의 필요성과 동적 등가성의 우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⁸.

한국어 교육과 번역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번역은 굳이 문학작품이나 한국어, 한국어사, 한국철학 등 교재의 번역은 물론이고 매 순간 한국어-현지언어 양자간 진행되는 교육활동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이는 한국어 교육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외국어 교육 전반에 해당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현장에서 매 순간 진행되는 이러한 번역활동과 전술한 번역의 이론의 조화는 꼭 필요한 것이며 이 조화로 교육의 효과와 그 질적인 차원에서 상호간 상승작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어 교육, 특히 동유럽의 한국어 교육 현실에 적용시키는 데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을 가정해 볼

⁸ Dynamic equivalence is therefore to be defined in terms of the degree to which the receptors of the message in the receptor language respond to it in substantially the same manner of the message in the receptors in the source language. This response can never be identical, for the cultural and historical settings are too difficult, but there should be a high degree of equivalence of response, or the translation will have failed to accomplish its purpose. (NIDA, 1974, 24)

수 있는데 그 중 한국문화의 저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은 그 핵심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수용자 중심, 문맥, 맥락 중심의 번역은 앞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목적언어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무리 없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문화적 수용의 간극이 크다면, 이론의 적용을 곤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적 등가성에 기초한 번역이 목적언어 수용자의 문화적 배경에 적합하도록 구현되는 번역이라고는 하나 원어와 목적언어의 문화적 간극이 커질수록 이론의 적용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문화는 그 층이 아주 다양하고 때로는 한 사회의 다수를 이루는 감성을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의 언어학적 현상과 특징을 설명하는 교육과 아울러 문화적 저변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교재 선택, 예문과 지문의 발췌, 더 나아가 이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을 수 있는 교재의 개발에 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단 이러한 교재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번역의 이론과 번역활동에 이러한 이론의 적용과 강의가 가능한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번역강의, 번역관련 국내외 기관들과의 정기적인 교류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그 실천과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본고에서는 Jakobson의 번역에 대한 구분을 인용함으로 번역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기호로서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학적 큰 틀 속에서 번역을 살펴보았으며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번역의 등가성에 대해 Nida의 형식 등가성과 동적 등가성의 구분을 인용하여 동적 등가성에 기초한 번역의 우위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인 토대를 중동유럽 지역의 한국어 교육에 적용시키는 데에는 가장 필요한 것으로 문화적인 저변의 확대를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실제 한국어 학습을 통한 한국문화 저변의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실천과제에 대해서도 나열해 보았다. 지면 부족으로 정리를 하지 못한 문맥, 맥락과 관련된 번역이론, 그리고 본고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몇 가지 번역이론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실제적인 적용 등은 향후 관심 있는 연구자들과 함께 논의를 지속시킬 수 있으리라 희망한다.

참고문헌

- HAMTIN, Basel, MUNDAY, Jeremy, *Translation*. An advanced Resource Book, London, New York Taylor & Francis Routledge, 2004, p. 44.
- JAKOBSON, Roman,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BROWER, Reuben Arthur (ed.) = *On Translation*,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p. 232-233.
- MUNDAY, Jeremy,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Routledge, Oxon, 2001, p. 42.
- NIDA, Eugene Albert, TABER, Charles. 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Photomechanical Reprint, 1974, p. 22-24.
- OLIVER, R., HORNSBY, J., *On Equivalence = Language in thinking*, ADAMS, P. (ed.), London, Penguin Books, 1972, p. 306-321.

SNELL-HORNBY, M., *Übersetzungstheorie*, Tübingen, Francke, 1994, p. 14.

WOODSWORTH, Judith. *A fordítás története*, MFE-HÍRLEVÉL IX. évfolyam, 3. szám, Budapest, A Magyarországi Fordítóirodák Egyesület, 2004, p. 15.